◆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 김창인 편집인 : 김은호 편집국장 : 조선근

체계적 성경공부에 온 성도가 참여를 !

'97 전반기 성경연구원 각 강좌 3월 9일 개강
수강 자격은 평신도 이상 누구나 등록 환영
교사 및 찬양대원은 필히 수강하여 자격증 취득토록

매년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전반기 · 후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는 성경연구원의 '97 전반기 성경연구원 강좌가 3월 9일(주일) 찬양예배시 개강예배를 드림으로 일제히 개강된다. 97년도 상반기 강좌는 6월 말까지 진행된다.

수강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오늘(23일)부터 3월 9일(주일)까지 교육국으로 원서 접수를 하면 되는데, 실시과정별 강좌계획은 다음과 같다.

(1) 주간 성경공부
-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전 · 오후
- 강의장소 : 교육관
- 교과목 :

로마서(화, 오전 10시, 이국병 목사)
느헤미야(화, 오전 10시, 김동석 목사)
초대교회사1(화, 오전 10시, 박노철 전도사)
크로스웨이1(화, 오후 7시 30분, 윤삼중 목사)
전도훈련(수, 오후 1~5시, 현상민, 박경한, 김필수, 김재철, 이국병, 전형준 목사)
크로스웨이1(수, 오후 1시, 한근수 목사)
크로스웨이2(수, 오후 1시, 이승림 목사)
크로스웨이3(수, 오후 1시, 윤삼중 목사)
크로스웨이4(수, 오후 1시, 김희수 목사)
성경과 세계관(수, 오후 7시 30분)
누가복음(목, 오전 10시, 이승림 목사)
출애굽기(목, 오전 10시, 장봉생 목사)
성경적 봉사론(목, 오전 10시, 이준우강도사)
크로스웨이2(목, 오후 7시 30분, 최영찬 목사)

(2) 양육훈련 과정
-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오전 · 오후
- 강의장소 : 교육관
- 과정 :

초급반 A(수, 오전 10시, 한근수 목사)
초급반 B(목, 오전 10시, 김동석 목사)
중급반 A(화, 오후 5시30분, 최영찬 목사)
중급반 B(수, 오후 8시, 김희수 목사)
중급반 C(목, 오전 11시 30분, 장봉생 목사)
중급반 D(토, 오전 10시 30분, 윤삼중 목사)
고급반(월 1회 이상)

(3) 교사양성부
- 교육시간 : 매주일 15:00~16:50
- 강의장소 : 교육관
- 교과목 :

각 교회학교 소개(이종대 목사)
충현교회 교회학교의 역사(이종대 목사)
구약개론(이홍성 목사), 신약개론(정광욱 목사)
기본교리(윤삼중 목사), 기본교리(장봉생 목사)
세계교회사(김동석 목사), 한국교회사(장경철 목사)
전도와 선교(이승림 목사), 예배론(현상민 목사)
기독교 교육의 원리와 실제 (박경한 목사)
기독교 상담학(김희수 목사)
교회학교 교사론 (성봉환 목사)
공과지도법(한근수 목사), 교회학교 실습

(4) 찬양대원양성부
- 교육시간 : 매주일 15:00~16:50
- 강의장소 : 베다니홀
- 교과목 :

교회 일꾼의 자격(현상민 목사)
영적 예배와 찬양(장우천 목사)
합창호흡 및 발성(박나연 선생)
초급시창(이승순 집사), 중급시창(장기범 집사)
고급시창(조신욱 집사), 합창 워샵(김철륜 집사)
찬양대원의 영성(김찬곤 목사)
은사와 봉사(성봉환 목사)
성경에 나타난 찬양(장경철 목사)
찬양대원의 자격(박경한 목사)

제7기 선교연구원도 3월 8일 개강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강의, 총 30주 과정

제7기 선교연구원이 오는 3월 8일(토) 오후 5시 베다니홀에서 개강예배를 드림으로 총 30주 과정의 선교 훈련을 시작한다. 전반기는 3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16주, 후반기는 9월 6일부터 12월 6일까지 14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각 과목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실제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게 된다.

특히 금년도 강좌의 특성은 매년 단기선교를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여 단기선교의 선교적 이론과 실제를 포함하여 단기선교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매주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모이는 선교연구원은 베다니홀에서 모이며 지원 자격은 충현교회 세례교인으로서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가능하고 타 교인은 소속 교회 당회장의 추천서가 필요하다. 3월 8일까지 선교위원회에서 원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상반기 강좌의 과목 및 강사는 다음과 같다.

3/8 개강예배 및 오리엔테이션
이승림 목사(선교위원회 지도)
3/15 타 문화권에서의 의사 전달
민명홍 선교사(GMTC 교수)
3/22 선교 소명과 준비(남미선교전략)
김복향 선교사(페루 선교사)
3/29 21세기 환경과 선교전략
최바울 선교사(INTER-COOP 본부장)
4/12 한국교회와 세계선교
신갑철 선교사(총회 MTI 원감)
4/19 아시아 종교권 선교
이동주 교수(협성대학교 교수)
4/26, 5/3 사도행전에 나타난 선교전략 (I , II)
박형용 교수(합동신학대학원대학 교수)
5/10 대학생 선교운동사
심창섭 교수(총신대학원 교수)
5/17 단기 선교 정탐의 이론과 실제
한정국 선교사(OMF 한국 대표)
5/24 미전도 종족 입양 전략
한정국 선교사(OMF 한국 대표)
5/31, 6/7 단기 선교 준비 및 훈련
홍종애 선교사(CCMTI 훈련 스테프)
6/14, 6/21 선교와 영적 전쟁 (I , II)
강승삼 목사(총회선교 국장)
6/28 평신도와 선교 사역
최바울 선교사(INTER-COOP 본부장)

오늘 성찬식
주일 1, 2, 3, 4부예배시에

금년들어 첫번째로 시행하는 성찬식이 오늘 주일예배 1, 2, 3, 4부예배시에 거행된다.

우리 교회는 1년에 네 차례(2/23, 5/25, 8/31, 11/23) 성찬식을 거행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수난을 기념하며 삶에 있어서 회개와 감사와 결심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는다.

오늘 새가족 환영회
4부예배후 갈릴리홀에서

오늘 4부예배 후에는 갈릴리홀에서 새가족환영회로 모인다. 96년 12월 22일부터 97년 2월 9일까지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을 대상으로 열린다. 새가족외에 교구장, 교역자, 지역장 및 해당 구역장들은 교구모임 후에 모이면 된다.

공동의회 공고

- 일시 : 97년 3월 2일 4부예배 후
- 장소 : 본당
- 안건 : 30대 장로, 11대 집사, 39대 권사 선거의 건
- 참석 : 충현교회 세례교인

학습, 세례식

금년 들어 첫번째로 시행하는 학습, 세례식이 지난 주일(2월 16일) 저녁 찬양예배시에 실시되었다. 금년부터 학습, 세례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학습, 세례식도 온 교우가 모인 저녁 찬양예배 시간에 갖게 됨으로 온 교회의 관심 속에서 수세자들에게 큰 격려와 바른 결심을 갖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온 교우들은 학습, 유아세례, 세례, 입교, 개종하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환영하며 축하하였다. 앞으로도 학습, 세례식은 두 달에 한번씩 거행된다.

충현강단

◑ 김창인 목사의 시편 강해 ◐

성전에 돌아가게 하옵소서

(시편 43:1-5)

시편 43편의 저자는 고라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환난을 만났을 때에 육신의 편안함이나 불의한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정당하게 산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다윗 왕의 셋째아들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니 다윗 왕은 뜻하지 않게 도망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고라 자손은 압살롬에게 아부하지 아니하고 도망하는 다윗 왕의 뒤를 따라갑니다. 정의를 따라서 고생과 위험한 일을 각오하며 희생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찬 바람이 불어오는 빈 들로, 비 내리는 골짜기로, 짐승이 울부짖는 황무지로 정처없이 도망다니는 다윗 왕을 뒤따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서 성전으로 돌아가게 해 주세요. 지금은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을 해 주시고 우리를 악한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주세요." 때로는 마음에 낙심이 되지만 자기의 영혼을 권면하며 지은 시입니다.

1. 하나님께 대한 호소가 어떠합니까(43:1-3)

(1) 불의한 재판에서 건지시옵소서

고라의 자손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첫마디가 "나를 재판해 주세요"입니다. 얼마나 담대한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으신 눈 앞에서 허물 덩어리인 인생이 어떻게 감히 재판해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라의 자손은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서 억울한 판결을 받았으므로 우주의 대법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경건치 못한 사람들의 판결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마치 고등법원에서 받은 판결이 억울할 때에 대법원에 상소하듯이 고라의 자손은 이미 판결받은 일에 대해서 대법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시정하여 바로잡아 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재판하는 사람에게는 경건이 있어야 됩니다. 경건한 사람이 자격이 있는 판사입니다. 경건이라는 말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약한 자를 돌보아 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둘째, 죄악에 때묻지 않은 양심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고라의 자손은 경건치 못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압살롬의 부하들에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다윗 왕과 다윗 왕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천하의 죄인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고라의 자손은 하나님께 경건치 못한 판결을 받고 도망가는 중에 변호를 하시어 정당한 판결을 내리실 것을 기도합니다.

(2) 주여 버리지 마옵소서

천지를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고라의 자손은 권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당하는 자신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가 하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힘은 한없이 크신데 어찌하여 악한 무리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있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너무나 안타까워 기도합니다.

(3) 주의 빛으로 인도하옵소서

캄캄한 밤이 되면 오는 어둠의 세력을 몽둥이나 총으로는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비출 때에 도망갑니다.

고라의 자손은 죄인의 판결을 받고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형편에서 하나님의 얼굴 빛이 비춰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무서운 짐승들이 울부짖는 캄캄한 산중에 벌벌 떨며 도망가는 모습과 같은데 어둠의 세력과 무서운 짐승들이 다 도망가도록 밝은 빛이 비춰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비추시어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시고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는 울부짖음입니다. "진리로 거짓말을 무너뜨려 주세요. 빛으로 어두움을 쫓아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2. 서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43:4-5)

(1)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서원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몸에 병이 나서 아플 때에 몸의 병을 고쳐 주시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고라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정당한 판단을 내리셔서 만인 앞에 죄인이 아님을 변호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구원해 주시면 제일 먼저 성전으로 달려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진정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나 고라 자손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제일 먼저 성전으로 돌아가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겠다고 했습니다. '극락의 하나님'이란 하나님을 지극히 즐겁게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땅 위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 합니까. 돈을 기뻐합니다. 건강을 기뻐합니다. 권세를 기뻐합니다. 지식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자의 기쁨은 성령님의 은혜받는 것을 기뻐하고 예배당에 자유롭게 나와 마음껏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진정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나 고라 자손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제일 먼저 성전으로 돌아가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겠다고 했습니다. '극락의 하나님'이란 하나님을 지극히 즐겁게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라의 자손은 하나님으로 지극한 즐거움을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도망가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성전으로 달려가 수금으로 찬송하겠다고 합니다. 수금으로 찬송한다는 말은 모든 기술을 동원해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2) 영원토록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자 앞에서 망신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큰 고생과 큰 환난이 임하면 그때는 어렵지만 그것은 곧 큰 일꾼이 되기 위한 연단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에 병이 들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때에도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궁궐에서 살았지만 그곳에서는 성공을 못하고 그 후 40년 동안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고서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십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삼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국무총리를 80년이나 하는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환난을 만날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면 원망이 오고 원망을 하면 받았던 은혜를 잃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새 은혜를 못받을 뿐더러 앞길이 막힙니다. 세상의 큰 인물은 어려운 일을 거쳐 나온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일이 지나면 즐거움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하면서 낙심하면 안됩니다. 내 자식, 남편, 아내, 친구한테 아무리 전도를 해도 예수는 믿지 않고 비웃기만 합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전도해야 됩니다. 비록 전도하던 그 사람이 믿지 않고 죽더라도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낙심하지 말고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힘만 얻으면 그 때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고라 자손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옳은 판결을 내려 주세요. 그리고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면 우리는 극락의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껏 찬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영혼을 보며 권면합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지." 그 후 6개월이 못되어 고라 자손은 다윗 왕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윗 왕을 환영할 때 물론 다윗 왕의 영광도 크지만 고라 자손을 향한 칭찬도 크거니와 그로 인하여 교인들에게도 큰 은혜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라의 자손은 환난 중에도 의인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절개를 지키면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는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더니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 때때로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 일이 지나고 나면 가장 좋은 일이었던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선한 일에 고생하던 사람은 성공하고 난 뒤의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고라 자손들이 행한 일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산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았을 때에는 권위가 있어야 되지만 죽은 후에도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이름으로 남아야 합니다. 고라의 자손은 오늘에 와서도 성도들에게 교훈이 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러나 악한 자와 타협하지 맙시다. 원망도 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므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한 죄는 회개하고 바로 살기로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하여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높으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건강 정보 ▶

갑상선이란 무엇인가

이 종 석
(장로, 제5교구장, 할렐루야찬양대장, 내과 전문의)

갑상선이란 말은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하게 들릴지 모른다. 뇌, 심장, 폐, 위, 간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갑상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본 난에서는 갑상선이 우리 몸의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그 기능은 어떠하며 갑상선에 이상이 생기면 어떤 병이 오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1. 갑상선의 위치, 모양과 크기

갑상선은 목 앞부분에 어른의 엄지손가락만한 크기로 좌우에 각각 하나씩 있고 좌우 갑상선은 띠모양의 엷은 조직으로 연결되어 있어 마치 나비모양과 비슷하다. 좌우의 갑상선을 연결하는 엷은 조직은 소위 '아담의 사과'(Adam's Apple)라고 불리는 갑상선 연골(목 중앙의 앞으로 돌출된 부분; 남자에게 더 뚜렷이 보인다)의 바로 아래에 놓여 있다.

갑상선 연골 아래에 공기가 폐로 들어가는 통로인 기관이 연결되어 있고 그 옆에는 귀밑으로 올라가는 근육이 있다. 좌우의 갑상선은 기관과 이 근육 사이의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어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좌우 갑상선을 각각 갑상선 엽(좌엽, 우엽)이라 부르며 이들은 그 길이가 약 4-5Cm, 너비가 1-2Cm, 두께가 2-3Cm이며 그 무게는 좌우 갑상선 엽과 연결 부분을 합하여 15-20g정도가 된다.

갑상선이란 말은 희랍어로 방패란 뜻에서 유래 되었는데 갑상선 위에 있는 갑상선 연골(아담의 사과, 목앞의 돌출된 부분)의 모양이 서양의 방패와 비슷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원래 우리나라를 비롯한 한자 문화권에는 갑상선이란 용어가 없었는데 일본 의학자들이 번역, 사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2. 갑상선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 몸에서 호르몬을 만들어 내는 기관을 내분비 기관이라 하며 내분비 기관으로는 뇌하수체, 갑상선, 부갑상선, 부신, 성선, 췌장 등이 있다. 이들은 각각 그 고유의 호르몬을 생산하여 분비한다. 즉 뇌하수체에서는 뇌하수체 호르몬을, 췌장은 인슐린을, 부신은 부신피질 호르몬을 만들어 내듯이 갑상선에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 낸다.

갑상선은 이러한 내분비 기관의 하나로 우리 몸에 절대 필요한 호르몬을 만들고 이를 저장 분비하는 곳이며,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갑상선 호르몬을 혈액으로 분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3. 갑상선 호르몬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갑상선 호르몬은 태어난 신생아의 성장과 발육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특히, 뇌와 뼈의 발육과 성장에 필수적인 호르몬으로, 만약 태생기와 성장기에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키가 자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발육이 안되어 지진아 혹은 백치가 된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대사 과정을 촉진시켜 모든 기관이나 장기들의 기능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체내의 열을 발생시켜 체온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한다. 사람이 추위에 얼어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갑상선 호르몬 생산으로 적절한 체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건강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몸의 각 부분이 그 고유의 기능을 잘 발휘해야 되는데 이때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에너지는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를 분해하여 얻는데 이 과정을 대사라고 한다. 갑상선 호르몬은 이러한 대사과정을 촉진시켜 에너지를 만드는 큰 몫을 하고 그 결과 열을 발생시킨다.

정상인에서는 갑상선 호르몬의 혈중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러나 만약 갑상선에 이상이 생기면 혈중 갑상선 호르몬 양이 증가되거나 감소된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대사장애가 일어나 무기력해지고 피로를 쉬 느끼며, 체온이 낮아지고 추위를 쉬 탄다. 반면 혈중 갑상선 호르몬이 과대해지면 대사가 너무 촉진되어 에너지 소모가 많아져서 체중이 감소되며, 심장이 빨리 뛰고, 더위를 참기 힘들어 하고 땀을 비오듯 흘리며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불안 초조해 한다.

4. 갑상선 호르몬은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갑상선 호르몬을 생성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물질은 요오드(옥소)이다. 요오드는 중금속에 속하는 자연계의 한 원소로서 바다물에 많이 들어 있다. 우리들이 즐겨 먹는 식품 중 해조류(김, 미역, 다시마 등)에 요오드가 많이 들어 있다. 음식물을 통하여 섭취된 요오드는 소장에서 흡수되어 혈액내로 들어오며 그 대부분은 갑상선으로 운반되고 나머지는 신장을 통하여 소변으로 배설된다. 갑상선 세포내로 들어온 요오드는 유기화 과정을 거쳐 갑상선 호르몬으로 만들어진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갑상선 호르몬에는 T_3, T_4라고 부르는 주된 두 종류의 호르몬이 있다. 갑상선 호르몬 중 요오드가 3개 붙어 있는 것을 T_3라 하며 4개 붙은 경우를 T_4라고 명명한다. 갑상선 호르몬은 만들어진 후 갑상선 세포내에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에 따라 혈액내로 분비된다.

5. 갑상선 기능은 어떻게 조절되는가

갑상선 기능은 뇌의 아래부분에 있는 뇌하수체에 의해서 조절되고 있다.

뇌하수체에서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혈액을 통하여 갑상선에 도달한 후 갑상선의 모든 기능, 즉 갑상선 내로의 요오드의 섭취,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 및 분비 등을 촉진시킨다.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필요한 경우엔 뇌하수체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많이 생산되어 갑상선을 자극하고, 반대로 갑상선 호르몬이 충분하다고 느껴지면 뇌하수체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적게 분비한다. 이것을 인체의 호메오스타시스(항상성)라고 하는데, 여기에 인체의 신비스러움이 있고 하나님의 섬세한 창조의 솜씨를 음미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뇌하수체는 우리 몸에 갑상선 호르몬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감지하여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과 분비를 조절하는 중앙 통제기관의 역할을 하게 된다. 즉 뇌하수체는 오케스트라로 말하면 지휘자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뇌하수체와 갑상선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혈액내 갑상선 호르몬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뇌하수체의 갑상선 기능 조절은 보일러의 자동 온도 조절장치와 흡사하다.

한편 뇌하수체의 기능은 뇌의 상부, 즉 시상하부 또는 뇌, 피질로부터 조절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조절 기능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아직도 많은 부분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 살며 생각하며 ▶

천국가는 환송식

김 경 숙
(집사, 새가족부 교사)

반지하의 작은 방에 머리를 빡빡 밀고 힘없이 누워 있는 박정자 성도의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글썽하며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말문이 막혔다.

남편은 시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자신은 파출부를 나가며 아들 딸 두 자녀를 키우며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던 중 91년도에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후 최근 다시 재발하여 투병생활 중에 수혈자를 찾는 방송을 듣고 달려간 이진규 집사님의 뜨거운 헌신적인 사랑으로 전도되어 충현교회에 등록한 것이 지난해 12월 15일이었다.

22일 주일에 등록카드를 전달받은 나는 급히 심방을 요하는 메모에 24일 아침 계선화 전도사님과 함께 심방을 했다. 박정자 성도는 병원에서 희망이 없다고 며칠 전에 퇴원해 있는 상태였다. 전도사님께서 통증을 호소하며 누워 있는 환자와 남편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는 말씀을 전하며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시고 받아들이게 하셨다.

말하기도 힘들어 겨우 입을 열어 "매일 와서 예배 드려 주세요"라는 부탁을 하던 그 날의 모습이 이 땅에서 마지막 얼굴을 대하는 날이 될지 누가 알았겠는가.

금요 찬양예배시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한 때문일까?

29일 주일 아침 너무나 평안하게 고통없이 눈을 감았다는 소식을 듣고 또 한번 가슴이 철렁하였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겼으리라 확신을 가지며 위로를 받았다.

4주간 동안 새가족부에 출석해야 교적번호가 나오고 구역에 편입되는 새로운 제도로 인하여 모든 장례절차를 새가족부에서 맡게 되었고 그 가정의 상황 설명을 들은 새가족부 교사들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위로금도 전할 수 있었다. 3일 동안 위로예배, 입관예배에 참석하고 새벽 3시에 드려지는 발인예배에 참석하여 장지인 경북의 풍기까지 다녀온다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다.

그러나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일 3:18)는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하관예배까지 참석하기로 작정하고 출발을 하였다.

윤삼중 목사님의 집례로 장례식은 은혜롭게 진행되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 4:16-17) 이 얼마나 소망 있는 말씀인가!

성도의 확실한 부활과 영생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산을 내려오는 발걸음은 무척이나 가벼웠다. 뚫린 길을 열어 주시고 껴입은 옷이 무색할 정도로 따뜻한 날씨를 허락하셔서 교통 체증과 날씨를 걱정하였던 나의 생각을 우려로 끝나게 하시며 귀한 성도의 천국가는 환송식에 참여하게 하시고 천국에 더 확실한 소망을 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각부의 겨울성경학교 및 수련회
대부분 금주에 실시

해마다 방학을 이용하여 일년에 두 번씩 열리는 계절학교 및 수련회가 금년 겨울에도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대학부 수련회(1월 20~23일)를 시작으로 교회학교 부서별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교회학교 각 부서의 형편과 특성에 따라 준비하여 진행된 이번 겨울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통하여 교회학교 각 부서는 영적으로 새로운 힘을 얻고 97년 한해를 성령 충만하고 능력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14개 부서가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남겨놓고 있는데 더욱 은혜 넘치고 성령충만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이 요구된다.

부서	주제표어	강사	기간	장소
영아부	예수님을 닮은 아기	박도수, 황성철	2. 25-26	선교관 103호
유아부	슬기로운 어린이	계선화	2. 25-26	교육관 212호
유치부	예수님처럼 자라자	한영준	2. 24-26	교육관 205호
유년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어린이	염현일	2. 24-26	교육관 314호
초등부	예수님을 잘 아는 어린이	한승일	2. 24-25	교육관 307호
소년부	하나님의 기쁨	박노철	2. 24-25	교육관 407호
중등2부	예수님 때문에	정광욱, 김필수	2. 26-28	충현기도원
중등3부	선한 싸움을 싸우자	이홍성	2. 26-28	충현교회
고등부	기쁜 우리 젊은 날	이국병	2. 24-26	충현기도원
청년2부	믿음 자유 그리고 생명	김정우, 김철해	3. 3-4	갈릴리홀
장년1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채우자	박형용	2. 22-23	갈릴리홀
사랑부	참 좋으신 예수님	이준우	3. 1	교육관 107호
에바다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준우, 박인기	2. 26-28	교육관 109호
영어교육부	우리는 교회의 각 지체이다	이승림	3. 1	복지관

예비신랑신부교육부
97-3기 수강생 모집

예비신랑신부교육부(부장 송환창 장로)에서는 기독교 신앙에 기초를 두고 건강한 가정을 설계하며 행복한 부부 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약혼 중 또는 결혼 준비 중인 적령기의 남녀 성도들에게 혼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월 2일부터 새로 시작되는 97-3기의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한다.

· 교육기간(2개월 과정) :
97년 3월 2일~4월 27일
매주일 오전 10시 30분~12시 40분
· 교육장소 :
교육관 208호, 209호
· 교육내용 :
① 성경적 결혼관 ② 부부의 심리 및 성격 ③ 혼수 준비와 가정 경제 ④ 가정법률상식 ⑤가정의학상식 ⑥ 부부대화 ⑦ 배우자 가족과의 바른 관계 ⑧ 건전한 성생활(1시간 강의, 1시간 분반공부)

권사 전체 교육 실시
26일(수) 1부예배 후 갈릴리홀

권사회(회장 신일순 권사, 지도 최순복 전도사)에서는 오는 2월 26일(수) 1부 예배 후 갈릴리홀에서 권사 전체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을 통하여 우리 교회 532명의 권사들은 권사로서의 자질과 역할에 대해 교육을 받고 사명을 새롭게 결단하게 될 것이다. 권사 전체 교육의 강사는 현상민 목사이다.

1997년도 상반기 장학금 수여
오늘 찬양예배시에

교회에서는 오늘 찬양예배시에 97년도 상반기 장학금을 전달한다.

우리교회는 성도들이 내는 장학헌금을 가지고 오래 전부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천국일꾼들을 양성하는 일에 힘써왔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신학대학원생 13명을 포함하여 모두 143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다.

· 신학대학원생
박노철 박인기 한승일 염현일 허정애 허 경 장혜영 이종관 최진우 송원석 김창중 오승희 허용구
· 대학생
김형일 황선희 이창주 최윤정 김영은 손호준 박재범 강영림 윤혜선 황은신 김지나 김은경 박미애 최지연 한미현 오지현 송경주 박희성 송정국 이규원 홍미정 김광석 장상원 김희석 김범진 김현욱 양현준 박은영 김혜영 이휘경 임성이 공경화 신혜령 김현아 남석우 권 진 이혜경 이혜은 김현정 기원삼 노성현 김영민 노기승 김지선 강성희 김소연 서필선 김현경 문지원 이아름 정우정 남연수 손상현 고덕인 최형원 이민욱 이민욱 이영선 김수희 윤한서 김지이 문선영 도유정 김옥경 김철중 서한설 임형준 임소영 여인재 김상언 이성권 송욱성 김향미
· 고등학생
고재영 안의정 정식완 이은정 김신념 최연주 김성길 김한석 유지성 김수정 배상희 신미라 강석천 정시온 김선미 오빛나 정재욱 임지용 한보람 홍사라 진용진 장성재
· 중학생
임현수 우성민 김유승 이진정 이우현 김인애 지은경 정국용 박광찬 변은정 김정원 강승연 허에스더 박하얀 김기현 강분희 김정식 한령아 김슬아
· 사랑의 장학생
송민수 김문구 조한성 김영근 남승호

진중세례식

군전도회(회장 김재명 장로, 지도 현상민 목사)에서는 지난 2월 12일(수) 육군 하사관학교에서 세례식을 거행하였다. 현상민 목사의 집례로 진행된 이 세례식에서 100명의 사병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과 나라를 위해 더욱 헌신과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날 세례식에는 우리 교회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등 30여명이 함께 참석하여 더욱 은혜가 넘치는 세례식이 되었다. 또한 지난 22일(토)에도 육군 34사단을 찾아가 사병 250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군전도회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전국의 각 부대를 방문하여 세례식을 거행하고, 군목을 지원하고, 군 교회 신축 및 증축하는 일을 추진하는 등 군 복음화를 위하여 전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 터키 김원호 선교사

회심자들의 영적 성장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모든 선교 동역자님들께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그간의 동정을 보고하고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동정〉

지난해 9월 10일 기독교신문사 캅삼에서 기도해 주시던 제이한 형제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10월 16일 그의 어머니 파트마도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모슬렘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 가운데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종교적인 이유로 모슬렘들의 대다수가 예수님의 성육신과 하나님 아들되심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믿게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의 성육신과 신성을 파트마 부인에게 설명할 때 주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캅삼신문사는 터키인 후세인이 세운 신문사인데 특별히 감사한 것은 저의 사역을 위해 형식적이지만 번역사라는 직함을 허락해줘서 사무실에서 새로 주님을 영접한 형제들을 양육하며 전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슬람 포교활동을 위한 많은 책방들과 신문사가 있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육셀 형제와 대학생 줄륨, 캐말과 수요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9월 22일 제이틴 부르느 교회 야외예배가 있었습니다. 알레비 모슬렘들의 초청으로 그들의 모임에 가서 찬양을 부르고 함께 교제하며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성경책을 나누어 주고 교회에 초청을 하였습니다. 감사한 것은 복음을 들은 알레비 모슬렘 가운데 하산이 캅삼 사무실에 방문하여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불가리아에 파송한 세밀 형제가 10월 8일부터 23일까지의 2차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10월 12일 저희 집에서 한국 사역자 이스탄불 유럽지역 친교회가 있었습니다.

10월 17일-23일에는 싱가폴 형제, 자매 6명이 제이틴 부르느 교회를 방문하여 4차례에 걸쳐 세미나와 불가리아 단기여행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기도 요청〉

기도가 필요한 터키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1) 주님을 영접한 후 착실하게 성장하고 있는 육셀 형제를 위하여

2) 세밀 형제는 불가리아 사역을 통해 큰 은혜를 체험하고 저의 사역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와 불가리아 터키인 촌 사역을 위해

3) 열심히 일하고 있는 메헤드의 믿음의 성숙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강해지도록

4) 군에서 제대한 캐말 형제가 주님의 일꾼으로 자기의 주거지역인 규측체크매제 지역에서 한 알의 밀알로 심겨질 수 있도록

5) 제이한 형제와 그의 어머니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

6) 금년에 변호사가 되어 일하게 되는 아히멜 형제를 위해

7) 새로 주님을 영접한 하산 형제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8) 지난 달 이혼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던 중 주님을 영접한 이웃에 사는 오야 부인의 믿음이 성장하도록(성경공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선교 동역자님의 가정과 사업과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김원호 선교사 가족 올림